2027년도 제3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중간 점검 모의고사 문제

교 시	문제형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1교시	A	50분	회계원리 / 민법

수험번호		성명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회계원리

1.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나)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때 표명된다.

	(가)	(나)
①	적정의견	한정의견
②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③	한정의견	의견거절
④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⑤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주식발행초과금은?

- 현금 ₩70,000
- 이익잉여금 30,000
- 상품 30,000
- 자본금 ₩50,000
- 매입채무 10,000
- 주식발행초과금 ?
- 매출채권 ₩15,000
- 장기차입금 20,000

① ₩3,000 ② ₩5,000 ③ ₩6,000
④ ₩7,000 ⑤ ₩9,000

3. (주)한국은 20×1년 9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 ₩12,000을 전액 현금 지급하면서 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한 경우, 20×1년 말 자산과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자산	부채
①	₩8,000(증가)	영향 없음
②	₩8,000(감소)	₩4,000(감소)
③	₩4,000(증가)	₩8,000(증가)
④	₩4,000(감소)	₩4,000(감소)
⑤	영향 없음	₩8,000(증가)

4.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③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④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5.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 통화	₩500
• 보통예금	₩1,500
• 자기앞수표	₩1,000
• 받을어음	₩1,000
• 우편환증서	₩700
• 당좌개설보증금	₩800
• 정기예금(가입: 20×0년 10월 1일, 만기: 20×0년 12월 31일)	₩2,7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20×1년 12월 1일, 만기: 20×2년 3월 31일)	₩1,000

① ₩3,000 ② ₩4,700 ③ ₩5,400

④ ₩6,400 ⑤ ₩7,400

6. 20×1년 12월 31일 은행계정조정 전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의 잔액은 ₩100,000이다. 이 금액은 거래은행이 보내온 20×1년 12월 31일 은행계정명세서의 잔액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은행측 잔액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주)한국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도수표가 ₩5,000 있다.
- (주)한국의 기발행미인출수표는₩20,000이다.
- 거래은행이 미처 기입하지 못한 (주)한국의 당좌예금 입금액이 ₩10,000이다.
-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4,000을 거래은행이 실수로 (주)한국의 계정에서 차감하였다.

거래은행이 보내온 20×1년 12월 31일 은행계정명세서의 잔액은?

① ₩100,000 ② ₩101,000 ③ ₩102,000

④ ₩103,000 ⑤ ₩104,000

7. (주)한국은 액면금액 ₩15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6개월인 어음을 수취하여 4개월간 보유한 후 연 12%의 할인율로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이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① ₩650 ② ₩875 ③ ₩955

④ ₩1,125 ⑤ ₩1,300

8.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 1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중 ₩ 30,000의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 700,000이며, 기대신용손실은 ₩ 40,000으로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⑤ ₩60,000

9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선급금 ② 이연법인세자산

③ 선급비용 ④ 사채

⑤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10. (주)한국은 20×1년 중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중 주식A는 전부 매각하였고, 주식B는 20×1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식A의 매각금액과 20×1년 말 주식B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	20×1년 중 취득원가	비고
주식A	₩250	매각금액 ₩220
주식B	₩340	20×1년 말 공정가치 ₩390

① ₩20 증가 ② ₩40 증가 ③ ₩50 증가

④ ₩20 감소 ⑤ ₩30 감소

11.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4년 만기,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90,49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20×1년 말 동 사채의 공정가치가 ₩94,500, 20×2년 말 동 사채의 공정가치가 ₩98,000일 때, 20×2년 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90,951
② ₩92,693
③ ₩93,539
④ ₩94,500
⑤ ₩98,000

12.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중 5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 기초재고자산 ₩10,000(재고자산평가충당금 ₩0)
· 당기매입액 ₩80,000
· 기말장부수량 20개(단위당 원가 ₩1,000)
· 기말실제수량 10개(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100)

① ₩74,000
② ₩75,000
③ ₩76,000
④ ₩76,600
⑤ ₩88,000

13.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간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의 차이는?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일자	내역	수량	매입단가
1월 1일	기초재고	300개	₩150
3월 3일	매입	400개	₩160
5월 6일	매출	600개	
9월 3일	매입	300개	₩180
12월 5일	매출	300개	

① ₩0 ② ₩1,550 ③ ₩1,700

④ ₩2,150 ⑤ ₩2,250

14. ㈜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초상품재고액은? (단, 재고자산 감모손실과평가손실은 없다.)

○ 총매입액	₩3,750	○ 매입리베이트	₩250
○ 기말상품재고액	375	○ 총매출액	6,000
○ 매출에누리	500	○ 매출총이익	1,125

① ₩1,000 ② ₩1,250 ③ ₩1,500

④ ₩1,750 ⑤ ₩2,000

15.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④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6.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ㄷ.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ㄹ.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
ㅁ. 유형자산의 중개수수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7. (주)한국은 20×1년 초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할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 내용연수: 4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① ₩50,000
② ₩75,000
③ ₩100,000
④ ₩150,000
⑤ ₩180,000

18. (주)한국은 20×1년 토지를 ₩1,000에 취득한 후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800과 ₩1,100이다. 다음 중 20×2년 총포괄이익은?

①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200 감소
③ ₩200 증가
④ ₩300 감소
⑤ ₩300 증가

19.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0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손익 또는 재평가잉여금은?

① 재평가잉여금 ₩100,000
② 재평가잉여금 ₩200,000
③ 재평가이익 ₩100,000
④ 재평가손실 ₩100,000
⑤ 재평가손실 ₩200,000

20.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 충당부채	₩50,000	• 장기차입금	₩10,000
• 선수금	₩30,000	• 사채	₩40,000
• 매입채무	₩60,000	• 미지급법인세	₩15,000
• 미지급금	₩40,000		

① ₩95,000 ② ₩110,000 ③ ₩120,000

④ ₩150,000 ⑤ ₩160,000

2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2.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속회복청구권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계약의 해제권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5.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7.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8.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②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④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2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④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3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④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언
㉡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한정후견인의 동의
㉣ 계약의 해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3.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4.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③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3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②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④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